

기고

이 재 필 보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노인학대 예방 모두의 관심만이 해결가능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00명 당 노인이 7명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신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하해 경찰청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7,620여건으로 2017년 6,000여건과 비교하면 25% 가량 증가한 통계 수치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학대 가해자의 70%가 자녀들이다 보니 자녀들의 잘못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들의 특성상 실제 노인학대는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핵가족화로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노인들이 노후에 노인관련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시설에서의 노인학대도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노인학대의 유형을 보면 단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학대와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UN에서는 2006년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경찰도 '사회적약자 보호 3대 지안정책'의 일환으로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6.14~6.30, 17일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위 기간동안 경찰에 노인학대 신고접수시 학대전담경찰관에게 통보되고 학대전담경찰관은 즉시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학대관단이 곤란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에 '학대사례관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제, 복지, 의료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지역사회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정부와 경찰 및 관계기관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도 노인학대가 엄연한 위법행위이고 그 피해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우리 주변에 노인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없게 잘 살펴보는 등 인식 전환을 위함이다.

부모와 조상들에게 죽어사까지 존경과 예의를 갖추는 등 효를 인성의 근본으로 생각하였던 지금의 노인들의 세대에서 노인을 존경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에게 까지 학대를 일삼는 작금의 자식들의 행태를 보는 노인들의 마음은 어떠한 행명의 자식으로서 앞으로

노인의 될 피해자의 마음으로써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社 說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질없어야

이르면 오는 8월 말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2호선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 폐막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최대 난관이었던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지난 3일 완료했으며 총사업비는 2조1761억원(국비 1조3057억원·사비 8704억원)으로 당초 2조5799억원 대비 1182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기본설계 이후의 실시설계 결과와 물가 및 자가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총사업비 협의 완료에 이어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도 지난 13일 완료돼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저심도 경전철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1단계 구간은 시청에서 월드컵 경기장, 백운광장, 조선대를 지나

광주역까지 총 연장 17km이며, 정거장 2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공사는 부실 없는 안전한 공사 추진을 위해 안전·품질·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쉽 없는 안전점검 활동을 추진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광주지역 대부분을 30분 내에 오고 갈수 있는 대중교통시스템이 구축돼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복지,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여름철 식중독 증상과 예방법

폭염에 가까운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불쾌지수가 상당히 올랐다. 정오계 점심을 먹기 위해 혹은 잠시 일을 보기 위해 잠시 외출하는 순간에도 등줄기에는 땀이 차오른다.

무더운 날에는 자연스레 체력과 능력이 저하되고 우리는 힘을 보충할만한 다양한 식품을 찾게 된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달리 각종 병을 유발하는 균들은 여름과 같이 더운 날씨에 기승을 부린다.

자칫 잘못하면 기력회복을 위해 섭취한 다양한 음식들에 번식한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식중독 환자 비율은 전체의 45%에 달한다.

이를 방증하듯 요즘과 같은 철에는 학교나 기관에서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보도를 심심하지 않게 접한다.

그럼 왜 식중독에 걸리는 걸까.

그 이유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려 한다.

원인균 별로 다르지만 통상 식중독은 감염 후 1시간에서 72시간 뒤에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식중독 증상에는 복통, 구토, 설사, 피로 등이며 심한 경우 탈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구토와 설사는 체내 유입된 세균과 독소를 신속히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전신피로, 신경마비, 근육경련 등 전신 증상은 균이나 바이러스가 장을 뚫고 체내 깊숙이 유입됐을 때 발생한다.

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됐다면 더 심각한 증세를 경험한다. 피가 섞인 대변을 보거나 신장이 손상되는 요독증후군이 발생 가능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연평균 7만여명이 감염되며 6명이 숨진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벼운 식중독은 3일 이내에 상태가 자연

적으로 호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식중독에 걸렸다면 원인 미생물을 배출하기 위해 구토와 설사를 하기에 체내 수분 손실이 심하며 음식을 섭취가 어렵다. 환자는 물 1L 기준 설탕 4숟가락, 소금 1숟가락을 탄 음료를 섭취하면 좋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온음료를 마시는 방법도 부족해진 전해질을 보충하는 좋은 방안이다.

실사나 구토 증상이 호전되면 갑자기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고 자극적이지 않은 미음이나 죽을 섭취해야 한다. 구토나 설사가 심하다고 항구토제나 지사제를 복용하면 체내 미생물 배출이 늦어지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 혈변을 보거나 심한 고열·설사가 지속되는 경우는 내진을 받아야 한다.

식중독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다. 많은 질병이 입을 통해 발생하듯, 식중독도 마찬가지로다. 특히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를 습관

화하는 게 좋다.

본인의 손만 잘 씻는다고 식중독이 완벽히 예방될 수는 없다. 식중독균은 원재료에 번식하고 있기 때문. 고로 음식 재료도 조리 전 깨끗하게 씻어주자.

좀 의아할 수 있는데, 환자 10명 중 4명은 오염된 채소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 겉보기에 아무리 청결해 보이는 채소라도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식초나 소독액을 이용해 살균해줘야 한다.

가급적 날, 수산물, 육류도 세척해 주는 게 좋는데, 주의할 점은 씻는 주위에 날로 섭취하는 과일이나 채소, 야채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척 중 오염된 물이 튀면 그대로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다.

식중독은 일상생활 속 위생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금만 신경 쓴다면 식중독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질 수 있다.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최성영 /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策 功 茂 實

策 功 茂 實

▷ 뜻: 공(功)을 꾀함에 무성(茂盛)하고 충실(充實)함.

등록번호: 광주가 0021 (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대표이사·회장 김평호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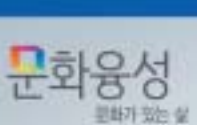
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